



The Soul Lake

IN GOD WE TRUST



AUGUST, 2010

유타대학총교회 외지복간 제 66호 10-(4)

발행일: 2010년 7월 25일 일요일 / 발행인: 김철웅 목사 / 편집인: 황수진, 송강

:: 목차

내 작은 믿음의 씨앗 (1)
- 이서진 형제 -

우리의 만남은 그분의 작품 (1부: 이 모든 것의 시작) (3)
- 함지하 형제 -

“내 작은 믿음의 씨앗”

사실 나의 이야기는 Soul lake에 실릴 만큼 대단하지도 멋지지도 않다. 게다가 봉사라는 주제로 글을 써내려 가기에는 나의 부족한 믿음의 짬밥이 나를 더욱이나 부끄럽게 만드는 것 같다. 결국 봉사라는 단어를 믿음이라는 단어에서부터 시작해보려고 한다.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아마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믿음에 대해서 한판 겨루어 보자는 심산일 것이다. 이와 같이, 나의 이야기를 풀어내기가 좀처럼 쉬운 일은 아닌 듯싶다. 하지만 사람마다 믿음의 크기와 믿음을 담는 그릇의 크기가 다르니, 뭐 한 번쯤은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인 것 같다.

나의 믿음을 담는 그릇은 국 그릇도 아니요, 밥 그릇도 아닌 아마 간장 종지 만 할 것 같다. 하지만 너무나 작은 그릇이기에 언제나 쉽게 차버리고 넘친다. 이런 나의 믿음은 다른 이에게 보여주기는 부끄럽지만, 나에게만은 언제나 충분하다. 왜냐하면, 나의 믿음 언제나 금세 가득 차 버리기 때문이다. 사실 잃어버렸던 믿음의 그릇을 찾은 지는 결코 오래되지 않았다. 나는 모태 신앙인으로써 내 마음속에 작은 믿음의 씨앗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심어져 사람이었다. 그 말인 즉슨, 내가 심은 것도 아니요 우리 부모님에 의해서 반 강제적으로 심어진 믿음인 것이다. 그 만큼 뜨거움이

라고는 씨알 머리도 없는 씨앗이었다. 그렇게 믿음의 씨앗은 결국 싹을 틔우지도 못한 채 썩어가는 찰나에 비닐 하우스 교회를 만난다. 1990년



이서진 형제

대 수서에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진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개발에 반대하는 가운데 비닐 하우스 촌을 이루고 사는 동네가 있었는데, 그 곳에는 언제나 얼굴을 찌푸리는 사람들이 태반이었다. 정말 답이 안 나오는 동네에, 작고 초라한 비닐하우스 교회가 나에게 구약의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가 되어 버린다.

그 교회는 토요일 날 비가 오는 경우에는 성도들이 손에 작은 손 걸레를 하나씩 가지고 주일 날 일찍 모이곤 했다. 왜냐하면, 아침 일찍 교회에 들어온 물을 닦아내야 예배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가끔은 교회에 있는 삼으로 물이 잘 빠져 나갈 수 있는 수로를 만드는 일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작고 긴 널빤지만이 비닐 하우스 교회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다. 어린 시절 조금은 나를 귀찮게

UTAH FOOD BANK

주차도 사역입니다
영년들은 Highland Highschool에 주차해주세요!
UCCC

하는 교회였지만, 그 작은 교회는 다소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가난하지만 부자 같은 믿음 과 봉사의 즐거움을 배우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알게 해준 소중한 교회였다. 비닐 하우스 교회 목사님은 언제나 같은 옷을 입으셨다, 누가 보아도 가난해 보이는 분이 셧다. 하지만 비닐하우스 목사님은 언제나 해맑은 미소 가지셨고, 가슴을 울리는 기도를 해주셨다.

사실 어린 나이에 좋은 교회 와 나쁜 교회, 부자교회 와 가난한 교회를 판단 할 수 없을 만큼 무지 했겠지만, 무지하고 어린 아이에게 작고 초라한 교회는 믿음이라는 그릇을 선물해 주었다. 아마도 비닐 하우스 교회로 나를 인도 한 것은 하나님의 이끄심 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그 믿음을 유지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중 고등 학교 시절의 신앙은 암흑기를 걷게 되고, 비로소 난 군대라는 곳에서 어린 시절 나의 신앙을 다시금 회상하게 된다. 역시 사람이 어려워 봐야 그 소중함을 안다는 말과 같이 고된 훈련과 외로움은 빠른 찬양을 불러도 눈물이 나고 손이 저절로 올라간다는 나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경험을 안겨준다. 아마도 그 때가 깊은 신앙의 병상에서 하나 둘씩 몸을 회복 해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다.

몸이 다 나아지듯 나의 신앙 나아질 무렵 난 미국 땅을 밟게 된다. 커다란 이민 가방 두 개와 싹을 제대로 틔우지 못한 간장 종지 만한 믿음을 가지고 이곳에 도착했다. 그리고 난 유타 대학촌 교회를 만난다. 나에게 믿음의 씨앗에 싹을 틔우는 방법을 알려준 교회이다. 해와 같은 말씀, 물과 같은 기도, 거름 같은 사역, 그리고 땅속의 지렁이와 같은 사랑과 봉사 난 태어나 처음으로 말씀을 공부했다. 물론 아직 예수님의 열두 제자의 이름이 가끔은 헛갈리곤 하지만, 난 태어나 처음 주님을 섬기는 사역이라는 것을 경험한다. 그리고 기도 중에 혹은 찬양 중에 남자답지 못하게 눈물을 흘리곤 한다. 결국 부족한 나는 주님의 찬양의 도구가 된다. 처음에는 두려움만 가득했다. 역시 알팍한 믿음을 대변해주는 감정이었다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지금 내 마음속의 두려움은 사라졌다. 왜냐하면, 난 하나님의 도구임을 인정하고 받아 드렸기 때문이다. 이제 내가 하는 찬양 사역은 자의에 의한 것도 아니고, 타의에 의한 것도 아닌, 주의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결코 쓰러지지 않는 것이다.

지하에 있던 나의 믿음은 모든 사람이 겪는 자연스러운 삶속에서, 주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이제서야 지상으로 올라왔다. 아직도 하늘과의 거리는 범접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멀

지만, 주님의 이끌어 주심을 통해 언젠가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결국 난 알게 된다 씨알만한 믿음의 씨앗은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끌어 주심을 만끽 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제 약간 큰 믿음의 그릇을 마련하려고 한다. 그 그릇을 채우려면 더 깊은 신앙에 대한 고찰과 기도가 필요하겠지만, 그 또한 이끌어 주심을 알기에 두려움 없이 준비하려고 한다. 결국 내가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봉사라는 것을 하는 이유는 믿음의 우여곡절을 통한 단련과 주님과과의 만남을 갈망하는 마음이 만들어내 하모니가 아닌가 하고 감히 결론 내려본다. (SL)

“믿음 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2절)



**유타대학촌교회
심야기도회**

매달 셋째주 금요일
금요찬양예배 이후

1724 E 2100 S, SLC, UT 84106
문의) 801-467-4337



UCCC
유타대학촌교회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페니 저금통 선교**

매달 마지막 주, 저금통을 교체해주세요!

1달러면 북한 아이들 한명의 일주일 분의 식사가 되고,
아이 3명의 결핵예방 접종 비용이 되기도 하며,
아이 한 명의 일주일 교육비가 됩니다.



UCCC
유타대학촌교회

우리의 만남은 그분의 작품 (1부: 이 모든 것의 시작)

- 함지하 형제

군인, 그것도 병사 신분인 내가 결혼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해 본 적이 없다. 수년 전, 텔런트 차인표 씨가 군 복무 중에 신애라 씨와 결혼한 경우는 봤다. 또 알고 지내던 형이 사고를 쳐서 급하게 휴가를 얻어 결혼을 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있다. 그러나 텔런트 출신 군인도, 불장난의 뒷감당을 해야 하는 철부지 청년 군인도 아닌 내가 이렇게 결혼을 앞두고 있을 줄을 그 누가 알았으랴. 생각해 보고, 또 생각해 봐도 역시나 하나님은 가장 하나님 다운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때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를 내게 허락하셨다. 마치 이삭에게 최고의 신부감 리브가를 찾아주셨던 것처럼...

내 나이 스물 아홉. 조금은 늦은 나이에 군에 입대했다. 그래서 함께 생활하는 전우들 대부분은 일곱 살에서 많게는 아홉 살까지 어리다. 입대 전, 사람들은 내게 하루 빨리 군대 가라고 내게 조언했었다. 어린 병사들, 심지어는 나이가 어린 간부들에게 존댓말을 쓰고, 자존심을 굽히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게 주된 이유였다. 물론 나도 군대에는 적당한 나이에 오고 싶었다. 남들처럼 안정적인 나이에 군대를 마치고, 취업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입대를 앞둔 때마다 늘 사건이 터졌다.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니던 중,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를 맞고 문을 닫았다. 집안이 어려워졌기에, 나는 유학을 중도 포기하고 귀국을 해야 했다. 입대를 할 수 있는 시기라고도 볼 수 있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진 부모님을 두고 입대를 할 순 없었다. 당시 나는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활을 했다. 그러던 중, 한국 생활 1년 쯤 되던 해에 어느 독지가의 도움으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미국에서 다시 학업을 시작하게 된 나는 그렇게 두 번째 입대 시기를 놓쳤다. 그 후로도 나는 꾸준히 입대를 하려고 카투사도 지원했고, 어학병 시험도 치렀지만, 늘 될 듯 하면서도 낙방했다. 한 번은 어학 특기가 아닌 일반 병사로 입대를 하려고 입영통지서까지 받아 뒀지만, 잠시 몸을 담고 있던 회사의 일이 마무리 되지 않아 입대를 취소해야만 했다. 그렇게 늘 적절한 시점을 놓쳐왔다. 남들에겐 별 어려움 없이 갈 수 있는 군대였을지 모르지만, 나에게 군

대는 늘 먼 곳이었다. 그렇게 난 스물 여덟이 될 때까지 군미필자로 살아야 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었던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했던 곳이 군대였지만, 난 늘 준비가 덜 되어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실 축복도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내 계획을 틀어야만 하셨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장 하나님이 가장 원하셨던 이 때에, 가장 적절한 시점인 지금 군 생활을 하고 있다고 믿는다. 사람이 제 아무리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고 한들 사랑으로 무장하셔서 자녀에게 가장 좋은 걸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엔 전혀 미치지 못한다. 일이 안 풀릴 때마다 좌절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 때마다, 지금 이 순간을 미리 알 수 있었다면 좌절 대신 기대를 했을 텐데...

내가 입대하던 날은 봄 기운이 느껴져야 하는 2월이었지만 굉장히 추웠다. 그렇게 입대한 지 사흘 째 되던 날이었다. 수백 명의 신병들이 모여 군대에 대한 간단한 교육을 받던 중, 교관 한 명이 내 이름을 부르고, 누군가 나를 찾아왔다며 어느 한 장소로 나를 안내했다. 그곳엔 사복을 입은 한 남성이 내 신상명세서를 들고 서 있었다. 그는 모 사령관의 비서실에서 나온 사람이었는데, 나를 사령관의 운전병으로 뽑으려 한 다며 내게 여러 가지 질문공세를 시작했다. 사실 아무런 특기가 없이 입대했던 나였지만,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지가 9년째인 터라 장군을 모시는 운전병 심사를 보게 된 것이다. 종교, 취향, 부모님 직업 등을 일일이 대답하고 얼마 후, 그 사람은 내가 그가 모시는 분의 운전병이 되었다며 이런 말을 던졌다. "네 군생활은 이제 폼다. 걱정말고 5주 훈련 잘 받아라!"

입대한 지 3일 만에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당연히 기뻐다. 장군 운전병에 대해선 이미 들었던 이야기가 있었다. 장군과 함께 한 집에 살면서 사복을 입는다. 그래서 남들보다는 조금 편한 군생활을 한다는 게 정설로 통했었다. 그렇게 상쾌한 마음으로 훈련소 생활을 시작했다. 훈련소에는 나를 포함해 총 14명이 한 공간에서 생활했다. 나는 이들을 내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열심히 품었다. 다행히 그리 어렵진 않았다. 내가 나이가 많아서 대부분이 나를 형 따르듯 따랐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나를 찾았다. 그렇게 난 '위로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았고, 점점 속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는 전우들도 생기기 시작했다. 깨어진 가정에서 온 청년들, 학벌 위주 사회에서 지방 학교 출신이라는 열등감을 가진 사람 등...

나는 형이 되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들어주었다. 그리고 그런 대화 가운데 나는 예수님을 그들의 삶 속에 집어넣었다. 사회에 있을 때 복음 전하기가 그렇게 힘들었지만, 군대라는 환경에서, 특히 내가 나이가 많은 상황에서선 어렵지 않았다. 그냥 어린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이들은 예수를 영접했던 것이다. 매주 종교행사 때 기독교를 찾은 인원이 6명 정도였지만, 훈련소 마지막 5주차 때엔 우리 분대원 14명 전원이 기독교를 찾았다.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은 후, 난 단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위로를 했을 뿐이었는데, 그들은 새 생명을 얻었다.

그러나 나에겐 고민이 하나 생겼다. 사령관 운전병이 된다면, 공관에서 홀로 생활을 해야 했기에 이런 사명은 훈련소에서 끝을 맺을 것만 같았다. 갈림길에 서게 되었다. 편한 군생활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이처럼 많은 사람들 무리에 어울려 위로자가 되고, 내 이웃된 이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것인가. 한참을 고민한 끝에 나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현신을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 내가 장군운전병 보직을 내려 놓습니다. 더 많은 사람과 함께 군생활 하며, 하나님 전할 수 있도록 저를 막사 생활을 할 수 있는 평범한 부대로 보내 주세요.”

더 많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장군 운전병이 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기쁨이 분명했음을 알았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이윽고 자대에 배치 받던 날이 되었다. 기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모 사단. 나는 내가 가게 될 줄 알았던 모 사령부에 있지 않았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평범한 부대로 나를 보내셨음을 알았다. 그러나 내 보직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1호차 운전병, 즉 그 사단을 이끄는 사단장님의 운전병으로 그곳에 가게 된 것이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내가 모시게 된 사단장님은 공관병도,

조리병도, 심지어는 늘 붙어다니는 전속부관도 자신의 공관에 살게 하지 않는 분이었던 것이다. 운전병인 나 역시도 공관이 아닌 운전병들과 정비병들이 모인 대대 막사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다. 1호차 운전병이 공관에 살지 않는 경우는 주변 사단에서도 우리가 유일했다.

하나님은 그 정도로 섬세하셨다. 그 분은 가장 하나님 다운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나를 장군 운전병이 되게 하시면서 동시에, 복음을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위치로 보내신 것이었다. 거기에다가 사단장님은 교회에서 안수집사였고, 사모님은 권사였다. 가족 모두가 크리스천이었기에 나는 주일에도 아무런 문제 없이 교회에 나갈 수 있었다. 하나님은 역시나 실수하지 않으셨다.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하나님이 분명했다. 자대에서도 나의 '위로자' 사명은 계속 이어졌다. 물론 훈련소와는 상황이 많이 달랐다. 동기가 전부였던 훈련소와는 달리, 내가 생활하기 시작한 곳에는 나보다 고참인 전우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처음엔 이등병인 내 자신이 많이 위축되고, 겁도 났다. 그러나 담담히 전진했던 여호수아를 생각하며 나는 고참들과 대화를 시도했다. 겁이 없는 이등병이 된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조금씩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겼다. 이 때도 내가 했던 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전부였다. 나는 사단장님을 모시면서도 틈틈히 부대로 돌아와 사람들을 만났다. 그렇게 이등병 손에 이끌려 교회에 가는 상병이 생기기 시작했고, 종교행사 때 기독교를 찾는 인원의 수가 많이 늘어났다.

그러던 중, 내 개인적으로 한 사건이 생겼다. 2년을 만나오던 여자친구가 내게 이별을 통보한 것이다. 군대에 온지 불과 두 달만의 일이었다. 당시 내게 남는 공허함은 나를 지치고 힘들게 했다. 그러나 그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듯 했다... (SL)

(얌지아 영계의 이야기는 소울레이크 9월호, <제 2부: 당신은 어디있나요>에서 이어집니다)

예배 안내

구분	예배	시간	구분	예배	시간
주말	1부 예배	09:50 AM	주중	새벽예배	월-금 06:00 AM 토 07:00 AM
	2부 예배	11:00 AM		수요예배	수 07:00 PM
	Youth	09:30 AM		금요 찬양예배	금 07:00 PM
	Youth Q.T 모임	매달 마지막 토요일		영년부예배	금 08:20 PM
	주일학교	11:00 AM		목재운련	1/3 주 토 08:30 AM
	제자운련	토 09:30 AM 토 11:00 AM		영년부 리더모임	월 08:00 PM



Soul Lake와 함께 하실 분들을 찾습니다

uuccutah@hotmail.com

기짜, 사진기짜, 짝가, 편집부 등 모든 분야에서 선교에 비전을 가지고 계신 분들, 문서 작성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으신 분들, 및 관심을 가지고 계신 많은 분들을 환영합니다.

uuccutah@hotmail.com이나 목사님, 선교부장님, 왕수진 자매, 송강 영계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대학촌교회 홈페이지 근황게시판 신설



세계 각국 대학촌 가족의 근황을 남겨주세요

uuccutah.org

본 유타 대학촌교회 월간소식지는 유타 대학촌교회 홈페이지(<http://www.uuccutah.org>)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